

##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박 영 숙

= Abstract =

### A Study on Psychological Ego Defense Mecanisms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Young Sook Park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In order to analyse differential ego defense mechanisms among age groups classified by developmental stage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results of Ewha Defense Mechanism test which had been completed on June, 1990. The number of subjects were 1,323 normal adults and students with 14~70 age range, who were selected by the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sex, age, educational level and residence status of 1985 National Population and Residence Statistics Data.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on show-off, reaction formation, identification, passive-aggressive, projection, displacement, denial, suppression, anticipation, rationalization, dissociation, sublimation, acting-out, altruism, regression, humor, evasion scales.

2) The younger age group had higher scores on show-off, reaction formation, identification, passive-aggressive, projection, displacement, dissociation, sublimation, acting-out, regression scales and more older, more higher on denial, suppression, anticipation, rationalization, altruism, evasion scales.

3) The female subjects got higher scores on show-off, identification, projection, displacement, denial, dissociation, somatization, regression and the male subjects presented higher scores on altruism, humor scales. The interation effects of age and sex were not found on any scales.

4) It was found that the older group did not get high score on mature defense mechanism scales in case of classified by maturity criteria.

5) On factor 1 scales of acting-out, displacement, somatization, dissociation, projection, passive-aggressive scales, the younger group presented higher score and the older group had higher score on denial, rationalization, suppression, anticipation, evasion scales which were attribute to stability and adjustment by factor analysis interpretation.

## 서 론

자아방어기제란 개인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요구를 조정하려는 무의식적 정신과정,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지닌 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 내려진다<sup>1)</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아방어기제는 무의식적 정신내적 과정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까지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적응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장아방어기제가 정신장애의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2)</sup>. 자아방어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개인의 일상적 반응행동을 기술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아방어기제는 내적인 정서, 사고과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을 제공해준다고 한다. 또한 정신장애자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치료자가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방어기제를 평가함으로써 치료적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치료적 과정에서 보여주는 방어기제의 변화를 통하여 치료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정신장애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진단분류 ICD-10(10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미국정신의학회 진단분류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Revised)에서 심리적 자아방어기제를 공식적 진단 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sup>3)</sup> 이에 대해 검토되었다<sup>4)5)6)</sup>. 그리고 현재 DSM-IV에서 진단 축 VI에서 장아방어기제를 평가하려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sup>3)</sup>. 이상과 같이 Freud(1894)<sup>7)</sup>에 의해 정신분석적 가설로 제시되었던 자아방어기제는 현재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 받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가나 이에 대한 임상적, 실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방어기제의 타당성, 자아방어기제의 객관적 평가 가능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되며 정상이나 정신장애자들의 자아방어기제의 특성이나 자아방어기

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서 일부 연구들은 자아방어기제가 개인의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Pfeiffer(1977)<sup>8)</sup>는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원초적인 자아방어기제로 퇴행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장자들은 보다 원초적인 자아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투사, 신체화, 부정, 현실철수 등의 자아방어기제를 선호한다.” 연령에 따른 퇴행적 자아방어기제의 사용은 Gutmann(1970)<sup>9)</sup>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주제통각검사를 통하여 3가지 유형의 자아방어기제—능동적, 수동적, 주술적 자아방어기제—를 구별하면서 주술적 자아방어기제란 왜곡과 부정을 통하여 현실도피하는 방어기제로서 다른 방어기제에 비해 퇴행적 방어기제라고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연령에 따라 능동적 방어기제, 수동적 방어기제를 거쳐서 주술적 방어기제에 도달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퇴행적 자아방어기제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Wasylenki(1982)<sup>10)</sup>는 노인기의 정신역동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도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퇴행현상을 제시하였다<sup>11)12)</sup>.

반면 연령에 따른 성숙방어기제 사용에 관한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Vaillant(1976)<sup>13)</sup>는 30년 추적연구를 통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현실왜곡이 적은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투사, 건강염려,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성숙한 방어기제—이타주의, 유우머, 억제, 예견, 승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성숙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스트레스 대응행동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sup>14)15)16)</sup>.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성숙하고 비적응적 기제—적대적 반응, 도피주의, 공상, 자아비난—를 더 적게 사용하는 한편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은 미성숙하고 비적응적 기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퇴행방어기제와 성숙방어기제 가설을 정리하면서 McCrae(1982)<sup>16)</sup>는 이 두가

지 가설이 모두 수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정 연령까지는 성숙방어기제를 사용하다가 노년기에 보다 원초적인 퇴행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연구들은 방어기제와 연령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sup>17)18)19)</sup>. Ilfeld (1980)<sup>17)</sup>는 연령 증가에 따라 외부 도움을 적게 구하고 포용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자들(Billings 등 1981, Folkman 등 1980)은 45세~65세 사이의 성인들의 방어기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면 이 연구들의 일차적 관심이 연령과 방어기제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퇴행가설과 성숙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어기제가 두 종류로 분류되어 제시되지 않았으며 Billings 등과 Folkman 등의 연구는 대상자 연령이 45~65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의 변화를 검토하기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기된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 변화 가설의 타당성이 반복되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가설을 검토하면서 한국인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제3가설, 즉 중년기의 성숙방어기제 사용과 노년기의 퇴행방어기제 가설을 제기하면서 한국인의 경우

연령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어기제 발달과정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만약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발견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연령집단에 따른 자아방어기제, 적응방식,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제시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연령간 행동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식이나 치료적 접근방식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령집단은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에서 의미있는 연령집단으로 구별하는 방식에 따라 청소년기(14~25세), 초기 성인기(26~35세), 중년기(36~59세), 노년기(60세 이상)로 분류되었다<sup>20)</sup>. 자아방어기제 평가도구로는 한국인의 적응행동과 자아방어기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 전래의 속담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표준화된 이화방어기제검사<sup>21)</sup>를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성, 연령, 학력, 거주지 별로 총화무선표집된 14~70세 일반인 및 학생 1,320명이었다. 검사 시행은 1990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개별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고 검사 목적 및 검사 시행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가 직접 검사지에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조건이 표 1에

표 1. 피검자의 연령, 성, 학력

		청소년집단(1) 14~24세	초기성인집단(2) 25~35세	중년집단(3) 36~59세	노년집단(4) 60세 이상	
국 줄	남	15	26	79	12	132
	여	18	39	129	14	200
중 줄	남	29	53	64	3	149
	여	44	66	78	4	192
고 줄	남	61	91	89	1	242
	여	77	91	53	1	222
대 줄 이 상	남	19	48	38	1	106
	여	20	28	28	1	77
소 계	남	124	218	270	17	629
	여	159	224	288	20	691
계		283	442	558	37	1,320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면 14~24세 청소년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1.4%, 25~35세 초기 성인집단은 33.4%, 36~59세 중년집단은 42.2%, 60세 이상 노년집단은 2.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42.2%, 여자가 52.3%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로는 1991년 표준화된 이화방어기제검사였다. 이 검사는 정상인의 경우 적응행동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자의 경우 특히 병적인 주요 방어기제를 평가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이 검사는 한국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래의 한국 속담에서 원문항의 내용을 발췌하고 이를 일반적인 문항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었다. 이 검사는 200문항 20개 방어기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20개 척도는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통제, 억제, 왜곡, 예견, 합리화, 해리, 신체화, 승화, 퇴행, 유우머, 회피이다. 검사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마다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척도별 점수 범위는 5~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기제를 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응답한 원점수를 각 척도별로 합산하여 연령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화방어기제검사의 신뢰도 계수를 보면 Spearman-Brown 교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반분신뢰도는 .66~.88, 재검사 신뢰도는 .72 이상이었고 성격요인검사와의 교차타당도 결과에서도 예견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화방어기제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연구결과

연령집단별 자아방어기제 20개 척도에서의 평균치, 표준편차,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고 있다. 표 2에서는 각 척도의 점수는 원점수로 제시되고 있다.

표 2. 연령집단별 자아방어기제 척도의 평균치, 표준편차,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EDMT 척도	연 령 집 단				사후검증
	청소년집단(1) (N=283)	초기성인집단(2) (N=442)	중년집단(3) (N=558)	노년집단(4) (N=37)	
1 허세	28.4(5.2)	26.7(5.5)	26.9(5.2)	24.6(4.9)***	1>2, 3, 4
2 반동형성	33.1(4.3)	32.2(4.6)	31.2(4.4)	28.7(4.3)***	1, 2>3>4
3 동일시	32.5(4.1)	31.5(4.7)	31.1(4.4)	31.5(4.1)***	1>2, 3
4 수동공격	29.9(4.9)	29.3(5.3)	28.1(5.0)	27.5(5.3)***	1, 2>3, 4
5 투사	29.1(4.9)	27.9(4.7)	27.4(5.1)	25.3(4.8)***	1, 2>4 1>2, 3
6 전치	28.4(5.0)	27.7(4.9)	27.2(4.6)	24.8(4.7)***	1, 2>4 1>3
7 부정	26.1(4.0)	26.3(3.9)	27.6(4.3)	28.5(3.6)***	4, 3>1, 2
8 통제	30.8(4.5)	31.2(4.6)	31.5(4.7)	31.6(4.3)	
9 억제	33.1(5.1)	34.1(5.2)	34.8(4.8)	37.1(5.5)***	4, 3, 2>1 4>2, 1
10 왜곡	27.8(4.9)	27.7(5.1)	27.6(5.0)	27.7(5.0)	
11 예견	29.4(4.7)	31.5(5.1)	32.3(4.9)	32.5(5.2)***	4, 3, 2>1 4, 3>2
12 합리화	30.4(4.2)	31.4(4.4)	32.5(4.2)	33.5(4.3)***	4, 3, 2>1 4, 3>2
13 해리	32.8(5.8)	31.5(5.9)	30.8(5.5)	30.6(6.0)***	1>2>3, 4
14 신체화	29.9(6.1)	29.4(6.6)	30.2(6.2)	32.2(6.2)	
15 승화	28.3(4.9)	28.4(4.9)	27.0(5.0)	26.1(5.2)***	1, 2>3, 4
16 행동화	28.8(6.2)	27.8(5.8)	27.2(5.4)	25.1(6.6)*	1>4
17 이타주의	30.6(5.1)	31.9(5.0)	32.7(5.1)	34.0(4.2)***	4, 3, 2>1
18 퇴행	32.3(4.2)	30.5(4.6)	29.4(4.5)	27.2(5.3)***	1, 2>3, 4 1>2
19 유우머	32.1(5.4)	31.6(5.6)	29.9(5.2)	28.8(6.7)***	1, 2>3, 4
20 회피	30.0(4.5)	29.5(4.1)	30.5(4.0)	32.0(4.4)***	4, 3>2

\*P<.05

\*\*P<.01

\*\*\*P<.001

표 3. 성별,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EDMT 척도		청소년군(1) (N=283)	초기성인군(2) (N=442)	중년군(3) (N=558)	노년군(4) (N=37)	성별평균	연령	성	상호 작용
1 허세	남	28.4	26.7	26.9	24.6	26.5	8.0***	14.3***	.2
	여	28.9	27.4	27.4	25.3	27.7			
2 반동형성	남	33.1	32.2	31.2	28.7	31.7	15.5***	1.7	.8
	여	33.5	32.3	31.3	29.0	32.1			
3 동일시	남	32.5	31.5	31.1	31.5	31.0	4.8***	17.4***	.1
	여	32.9	32.1	31.6	32.4	32.1			
4 수동공격	남	29.9	29.3	28.1	27.5	28.7	9.8***	1.5	.2
	여	30.2	29.5	28.1	28.0	29.1			
5 투사	남	29.1	27.9	27.4	25.3	27.3	9.3***	16.7***	1.2
	여	29.9	28.6	27.7	25.6	28.5			
6 전치	남	28.4	27.7	27.2	24.8	26.5	6.9***	63.1***	2.4
	여	29.9	28.7	27.9	25.5	28.6			
7 부정	남	26.1	26.3	27.6	28.5	26.3	12.9***	20.8***	.5
	여	26.4	27.0	28.3	29.0	27.3			
8 통제	남	30.8	31.2	31.5	31.6	31.6	1.2	8.3	.7
	여	30.8	30.6	31.1	31.2	30.9			
9 억제	남	33.1	34.1	34.8	37.1	34.7	10.2***	.1	.9
	여	32.7	34.0	35.0	37.0	34.2			
10 왜곡	남	27.8	27.7	27.6	27.7	27.9	.2	2.7	4.8
	여	27.4	26.9	27.9	29.0	27.5			
11 예견	남	29.4	31.5	32.3	32.5	31.5	20.7***	.0	.6
	여	29.3	31.6	32.1	33.4	31.3			
12 합리화	남	30.4	31.4	32.5	33.5	31.8	16.5***	.5	.5
	여	30.1	31.3	32.6	33.3	31.6			
13 해리	남	32.8	31.5	30.8	30.6	30.0	6.9***	76.9***	1.6
	여	34.4	33.0	31.8	31.7	32.8			
14 신체화	남	29.9	29.4	30.2	32.2	27.7	2.6	162.0***	.6
	여	32.0	31.7	32.1	33.6	32.0			
15 승화	남	28.3	28.4	27.0	26.1	27.6	7.9***	1.2	.4
	여	28.5	28.3	27.3	26.8	27.9			
16 행동화	남	28.8	27.8	27.2	25.1	27.6	3.3*	.7	1.0
	여	27.9	27.7	26.9	24.7	27.3			
17 이타주의	남	30.6	31.9	32.7	34.0	32.5	10.4**	9.6**	1.4
	여	30.1	31.1	32.5	34.2	31.5			
18 퇴행	남	32.3	30.5	29.4	27.2	29.6	27.9***	28.8***	.9
	여	33.1	31.1	30.4	28.7	31.1			
19 유우머	남	32.1	31.6	29.9	28.8	31.6	14.3***	18.8***	.1
	여	31.5	30.8	29.4	27.9	30.3			
20 회피	남	30.0	29.5	30.5	32.0	30.0	7.3***	1.6	.8
	여	30.0	29.9	30.6	32.2	30.3			

\*P<.05    \*\*P<.01    \*\*\*P<.001

표 2에서 보면 20개 방어기제 척도 가운데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해리, 승화, 행동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 회피 척도에서 연령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집단간 유의도 수준은 행동화를 제외한 16개 척도에서 .001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령집단간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방어기제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우와 연령이 많을수록 방어기제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우를 구별해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연령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해리, 승화, 퇴행, 유우머였다. 반대로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이타주의, 회피였다. 행동화는 청소년집단과 노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되는 방어기제 가운데 연령에 따른 변화가 가장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는 투사, 퇴행, 해리였다. 이 3개 방어기제는 다른 방어기제가 연령에 따른 변화가 비교적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이 방어기제들은 청소년집단과 초기성인집단간 차이가 있고 초기성인집단과 중년집단의 차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동-공격, 승화, 유우머척도는 연령집단간 차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간 차이는 없으며 중년집단과 노년집단 차이는 없지만 청소년집단과 초기성인집단, 그리고 중년집단과 노년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방어기제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척도는 허세, 동일시, 투사, 전치, 부정, 해리, 신체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였다. 집단간 차이의 유의도 수준은 이타주의( $p < .01$ )을 제외하고는 .001 수준이었다.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유의미하게 보이는 방어기제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 방어기제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척도 가운데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허세, 동일시, 투사, 전치, 부정, 해리, 신체화, 퇴행이었고 반대로 남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이타주의와 유우머였다. 특히 신체화척도는 여성집단이 남성집단에 비해 매우 차이 나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다음은 성숙단계에 따라 방어기제를 분류하고 성숙단계별 방어기제가 연령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성숙단계별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4에서 미성숙단계의 방어기제를 보면 동일시는 청소년집단이 초기 성인집단과 중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고 수동-공격행동은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 보다 점수가 높았다. 투사는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이 노년집단 보다, 청소년집단이 초기 성인집단과 중년집단 점수가 보다 높았다. 행동화는 청소년집단과 노년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퇴행은 청소년집단이 초기 성인집단, 중년집단, 노년집단 보다 높았고 초기 성인집단 역시 중년집단, 노년집단 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부정은 노년기집단과 중년기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성숙단계의 방어기제는 청소년과 초기성인기집단에서 보다 우세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증단계의 방어기제를 보면 허세, 반동형성, 전치, 해리방어기제에서 청소년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합리화는 노년기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허세척도는 청소년집단이 모든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반동형성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집단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전치척도에서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집단이 노년집

표 4. 성숙단계별 방어기제의 연령 차이 Duncan 사후검증 결과 요약

EDMT 척도	미성숙단계	신경증단계	성숙단계
동일시	1>2, 3	허세	1>2, 3, 4
수동공격	1, 2>3, 4	반동형성	1, 2>3>4
투사	1, 2>4 1>2, 3	전치	1, 2>4 1>3
행동화	1>4	해리	1>2>3, 4
퇴행	1>2>3, 4	합리화	4, 3>2>1
부정	4, 3>1, 2	억제	4, 3, 2>1 4>2, 1
		예견	4, 3>2>1
		이타주의	4, 3, 2>1
		승화	1, 2>3, 4
		유우머	1, 2>3, 4

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청소년집단이 중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해리는 청소년집단이 초기 성인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집단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합리화기제는 노년집단이 중년집단, 청소년집단, 초기 성인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성숙단계의 방어기제를 보면 억제, 예견, 이타주의는 노년집단이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이 가운데서 억제는 노년집단, 중년집단, 초기 성인집단이 청소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노년집단은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예견은 노년집단과 중년집단이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초기 성인집단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타주의는 노년집단, 중년집단, 초기 성인집단이 청소년집단에 비해 높았다. 한편 승화와 유우머는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다음은 방어기제를 요인별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들의 연령 차이를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 보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면 요인 1에 해당되는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척도 가운데 신체화를 제외한 모든 방어기제에서 연령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방어기제들은 감소의 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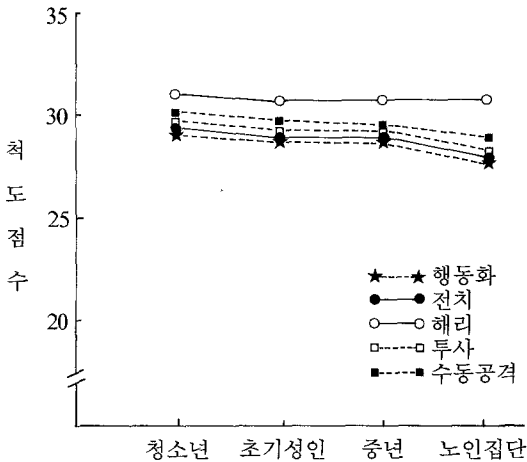


그림 1. 요인 1 방어기제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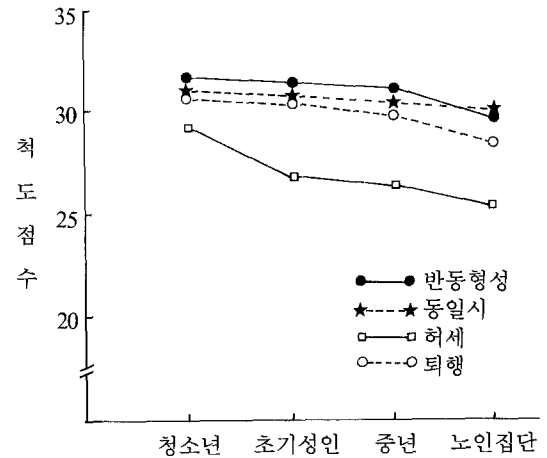


그림 3. 요인 3 방어기제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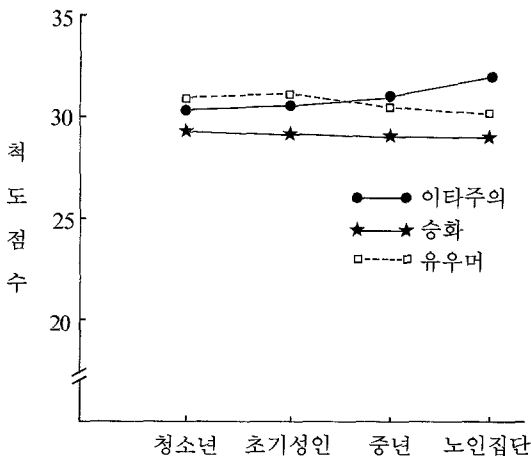


그림 2. 요인 2 방어기제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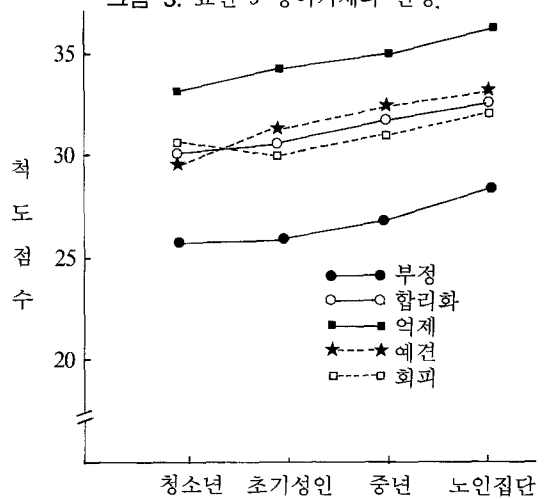


그림 4. 요인 4 방어기제와 연령.

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림 2에서 보면 요인 2에 해당되는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척도 가운데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타주의는 연령이 높은 집단들이 청소년집단에 비해 높으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유우머와 승화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점수가 높으므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점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3에서는 반동형성, 허세, 동일시, 퇴행의 요인 3 척도들이 검토된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요인 4에 해당되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척도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같이 요인 4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는 노년기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방어기제의 사용이 강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요인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고 찰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었다. 20개 방어기제척도 가운데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해리, 승화, 행동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 회피척도에서 연령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해리, 승화, 퇴행, 유우머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이타주의, 회피였다. 행동화는 청소년집단과 노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허세, 동일시, 투사, 전치, 부정, 해리, 신체화, 퇴행이었고 남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이타주의와 유우머였다.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떤 척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숙단계로 구별하였을 때 부정을 제외한 미성숙수준의 방어기제와 합리화를 제외한 신경중수준의 방어기제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숙수준의 방어기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와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가 혼합되어 있었다.

요인분석에서 요인 1로 분류되었던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척도는 신체화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요인 2에 해당되는 이타주의는 연령이 높은 집단들이 점수가 높고 유우머와 승화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요인 3에 해당되는 반동형성, 허세, 동일시, 퇴행은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요인 4에 해당되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척도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화방어기제검사로 측정된 방어기제에서 연령에 따라 방어기제 점수에서 차이가 나며 연령이 많은 집단이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와 연령이 적은 집단이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가 구별되는데 이러한 방어기제들은 성숙수준 보다 요인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즉 성숙수준의 방어기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수가 증가한다고 보이지 않았던 반면 제 1요인, 제 3요인의 방어기제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요인 4의 방어기제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반면 제 3요인 방어기제들은 이러한 경향성이 혼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제기하였던 연령에 따른 성숙가설과 퇴행가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성숙가설이나 퇴행가설 어느 가설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퇴행가설을 지지했던 선행연구들<sup>8)9)10)11)</sup>은 연령이 증가하고 특히 노년기에 들어가면 퇴행, 부정, 투사, 왜곡, 신체화기제를 주요 방어기제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연령이 가장 낮은 청소년집단에서 이러한 방어기제를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방어기제, 이타주의, 유우머, 억제, 예견, 승화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sup>13)14)15)16)</sup>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Bond등<sup>21)</sup>은 자아방어기제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응적 방식으로 부터 이미지-왜곡방식, 자아희생적 방식, 생산적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La-



bouvie<sup>23)</sup> 등은 이와같은 성숙 가설을 지지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노나 우울정서의 언어 표현 능력, 신체 반응에 대한 자각, 자신이나 타인의 갈등에 대한 수용, 행동의 융통성과 지인이 높아 지기 때문에 보다 성숙하고 융통성있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요인에 따라 해석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화방어기제의 요인분석 결과 제시되었던 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화방어기제검사 표준화 과정에서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4개 요인에 대한 명명과 해석이 시도되었다<sup>21)</sup>. 청소년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요인 1에 속하는 방어기제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성, 정서적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었다. MMPI 임상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척도들은 MMPI의 6, 7, 8, 9번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sup>24)</sup>. 이 척도들은 편집증척도, 강박증척도, 정신분열증척도, 경조증척도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증적 척도들로 분류될 수 있다<sup>25)</sup>. 이와같은 결과는 요인 1이 불안정한 기제라는 명명이 타당함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요인 2에 속하는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는 MMPI 척도와의 상관성을 보면 이타주의는 4, 2 척도와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유우머와 승화는 9번 척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2번 척도와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타주의는 유우머나 승화와 동일한 요인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이타주의는 4번 반사회적 척도, 2번 우울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9번 경조증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유우머나 승화와는 다르게 자아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시사하는 한편 유우머나 승화는 우울반응과는 반대되는 정서적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타주의는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유우머와 승화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요인 2는 긍정적 자아상과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서 자아확대적 기제라고 명명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척도간 이질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으며 연령별 차이도 동질적이지 아니므로 앞으로 이 요인의 성질에 대해 검토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요인 3에 해당되는 반동형성, 허세, 동일시, 퇴행은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요인분석에서는 이 척도들이 충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사변적인 성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현실부정 혹은 자아부정기제라고 명명되었다. MMPI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반동형성과 허세는 9번 경조증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일시와 퇴행은 6, 7, 8, 9번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써 이 요인 역시 이질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요인 4에 해당되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척도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고 특히 노년집단에서 일관되게 점수가 높았다.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들은 현실적면 회피방식이라고 명명되었으며 MMPI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척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임상척도들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2번 우울증, 3번 히스테리, 4번 반사회성, 7번 강박증, 8번 정신분열증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써 요인분석에서 명명되었던 특성과는 또 다른 점을 시사해준다. 그 근거로는 MMPI 임상척도들과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들 척도가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소를 다른 척도들에 비해 가장 적게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 1과 요인 3에 속하는 방어기제들은 낮은 연령집단 특히 청소년집단이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 사변적이고 비현실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 4에 속하고 있는 방어기제들은 높은 연령집단 특히 노년집단이 불안방어의 효과가 높고 그 결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숙방어기제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반응, 공상으로의 도피, 자기비난이 감소한다는 MacCrae<sup>15)</sup>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자면

지나치게 도전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어기제, 혹은 이와 대립적인 회피적인 방어기제 등 극단적이고 그 결과 부적응을 초래하는 불안정한 방어기제의 사용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된 방어기제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와 MMPI 척도와 의 상관관계 결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 성인집단의 방어기제, 즉 나이가 젊은 집단에서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중년집단과 노년집단, 특히 노년집단은 안정되고 효과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장자집단이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갈등과정에서 이러한 방어기제 사용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이득이 있는 반면 도전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위촉시키는 제한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면 청소년집단과 초기 성인집단은 불안정되고 극단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적응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령집단간 방어기제의 차이는 이들 집단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갈등해결방식, 적응방식의 특징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치료적 입장에서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집단에 적절한 방어기제나 대응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아방어기제와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집단에 따른 갈등이나 스트레스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집단은 가족이나 직업 보다는 신체적 스트레스요인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요인의 변화에 따른 방어기제나 대응책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러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26)</sup>. 다른 제한점은 본 연구가 장기적 연구(longitudinal approach)가 아닌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approach)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동일 집단을 장기 추적한 경우가 아닌, 다른 세대에 속하는 연령집단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연령에

따른 효과 뿐만 아니라 집단 효과도 혼합될 수 있다. 즉 초기 성인집단과 중년집단은 집단이 공동으로 경험한 사회적 사건에 따라 집단의 적응방식 또는 방어방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 추적연구를 통하여 연령에 따라 방어기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문화적 변동에 따른 방어기제의 차이도 통제해주게 될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억압 보다는 퇴행기제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지적되고 있는데<sup>27)</sup> 연령집단들에 대한 장기연구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하도록 해준다.

## 결 론

본 연구는 1990년 6월에 시행되었던 이화방어기제검사에 나타난 자아방어기제의 연령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검사 대상자는 '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성, 연령, 학력, 거주지별로 총화무선표집된 14~70세 일반인 및 학생 1,320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개 방어기제척도 가운데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해리, 승화, 행동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 회피척도에서 연령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연령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해리, 승화, 퇴행, 유우머, 행동화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는 부정, 억제, 예견, 합리화, 이타주의, 회피였다.

3)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허세, 동일시, 투사, 전치, 부정, 해리, 신체화, 퇴행이었고 남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는 이타주의와 유우머였으며 연령과 상호작용 효과는 어떤 척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4) 성숙수준으로 방어기제를 분류한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성숙방어기제가 증가되는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요인분석에서 요인 1로 분류되는 불안정한 방어기제,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기제가 나이가 젊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요인

4로 분류되는 안정되고 적응을 가져다 주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기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 References

- 1) Bond M, Gardner St, Christian J, Sigal JJ : *Empirical Study of self rated defense style. Arch J Psychial* 1983 : 40 : 333-338
- 2) Vaillant GE :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86* : 19-22
- 3) Vaillent GE : *Ego mechanisms of defense :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92* : 29-42
- 4) Marmer SS : *Thories of the mind and psychopathology. In Talboit JA, Hales RB, Yudofsky SC(eds) : Textbook of Psychiatry.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88* : 135-138
- 5) Sartorius N, Jablensky A, Reigier DA(eds) : *Sources and Traditions of Classification in Psychiatry. Toronto, Hogrefe and Huber 1990* : 1-10
- 6) Karasu TB, Skodol AE : *Vith axis for DSM-III : psychodynamic evalaution. Am J Psychiatry* 1980 : 137 : 607-610
- 7) Freud S : *The nero-psychoses of defense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3, Translated and edited by Strachey J. London, Hogarth Press 1962* : 206-21
- 8) Pfeiffer E : *Psychopathology and Social pathology. In Iron JC, Fredda BF :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adaptive coping in adulthood : J Gerontology* 1987 : 42 : 5 : 502-504
- 9) Gutamann DE : *Female ego styles and generational conflict. In McGrae RR :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 Gerontology* 1982 : 37 : 4 : 454-460
- 10) Wasylenki DA : *Psychodynamics and aging. Can J Psychiatry* 1982 : 27 : 11-17
- 11) Shenfeld ME : *The developmental course of defense mechanism in later life. Int J Aging Hum Dev* 1984 : 19 : 55-71
- 12) Wertheimer J : *The mechanisms of permanence time : support for a psychoynamic hypothesis of psychological aging. J Geriatr Psychiatry* 1983 : 16 : 2 : 245-255
- 13) Vaillant GE :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Arch Gen Psychiatry* 1976 : 33 : 535-545
- 14) Iron JC, Fredda BF :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adaptive coping in adulthood : J Gerontology* 1987 : 42 : 5 : 502-504
- 15) Felton B, Revenson T : *Cohort differnces in stress, coping, and appraisal. The Gerontologist* 25 : 66-76
- 16) McCrae RR :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 Gerontology* 1982 : 37 : 4 : 454-460
- 17) Ilfeld FW : *Coping styles of Chicago adults. Journal of Human Stress* 1980 : 6 : 2-10
- 18) Billings AG, Moos RH :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l Medicine* 1981 : 4 : 139-157
- 19) Folkman S, Lazarus RS :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kk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0 : 21 : 219-239
- 20) 김애순·윤진 : 성인기의 연령증가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987 : 6 : 1-8
- 21) 김재은·이근후·김정규·박영숙 : 이화방어기제 검사의 실시요강. *하나의학사* 1991.
- 22) Bond M : *An empirical study of defense styles in Vaillant GE(ed) :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1986 : 1-31
- 23) Lavouvie VG, Devoe M, Bulka D : *Speaking about feelings : conceptions of emo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 Aging* 1989 : 4 : 4 : 425-437
- 24) 베지연 : *MMPI 하위척도가 나타나는 성격 특성과 자아의 방어기제간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 18-38
- 25) 김중술 :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1-2
- 26) Feifel H, Strack S : *Coping with conflict situations : middle aged and elerly men, Psychol Aging* 1989 : 4 : 1 : 26-33
- 27) Hamburg BA : *Social change and the problems of youth In Arieti S(ed) :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5 : 385-410